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8.1.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파산 땀 국내 산업기반 ‘흔들’... 정부, 광물자원공사
살린다”(1.9, 서울경제 인터넷판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배제한 회생안을 4월 발표 예정,
정부가 광물공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
 - 광물공사는 '18.5월 만기채권 차환발행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
- ☐ 향후 5년간 만기도래 채권이 4조 5,307억원으로 정부가 추가 출자
없이도 근본적 경영개선이 불가능
 - 광물공사법 개정을 통해 2조에 묶인 출자 상한 완화 가능성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향은 정해진 바 없으며, 기사
내용은 사실과 다름
 - 정부는 「해외자원개발 혁신 TF」를 구성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
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
한편,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철저한 구조조정 방안을
마련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윤정원 팀 장 (044-203-5150)